



USDA, 위성·AI 활용한 작물 생산 전망 개선 시범사업 추진

(USDA to test satellites, AI to try to improve crop estimates amid farmer criticism)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USDA) 장관은 화요일 정부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작물 재배면적과 단수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술 활용을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롤린스 장관은 아이오와주 분에서 열린 팜 프로그레스 쇼(Farm Progress Show)에서 USDA의 데이터 현대화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농업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농업인과 농업단체를 대상으로 한 한 달간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정부의 농업정책과 통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이후 발표됐다.

우크라이나 농업단체, 수출업체에 항만 운영 중단 장기화에 대비할 것 촉구

(Ukraine exporters should plan for shut ports, farmers' union says)

우크라이나 최대 농업인 단체인 UAC의 분석부서는 화요일, 우크라이나 생산자와 수출업체들이 심해항만의 조속한 운영 재개를 기대하기보다 현재 이용 가능한 대체 수출 경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몇 달간 흑해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오데사 지역 항만 인프라의 운영에 차질이 확대되면서, 과거 우크라이나 수출의 90%를 처리했던 수출 경로가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수출 화물을 다뉴브강 항만과 서부 국경을 통한 철도 운송으로 전환하고 있다.

출처: Thomson Reuters